

## 옛 러시아공사관 비밀통로의 비밀(08)

### 경복궁 시계탑 풍문의 진실은?

우선 경복궁의 건청궁에 시계탑이 있었다고 풍문처럼 떠도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그것도 목조로 지어진 탑이었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앞서 ‘관문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인 종군기자가 청일전쟁을 취재하면서 그렸다는 삽화를 보았다. 거기에는 일본군이 청군과 싸우는 장면 뒤로 관문각도 보았고 시계탑이라 지칭하는 탑도 보았다.

불과 12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마치 수천전의 신화처럼 신비스런 느낌까지 든다. 우리는 현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현 서울대학병원 의학박물관)의 건물 중앙 탑에 보이는 시계를 보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받기도 한다. 혹은 서울역(옛 경성정차장) 돐 아래의 아치 속 동그란 시계를 보면서도 낭만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사람들이 손목에 시계 차고 다니는 것이 사치이고 자랑이었을 적에, 그리고 장가갈 때 손목시계가 중요 혼수품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요새는 껍데기만 남기고 가래질 공사하는 서울시청의 시계도 벌써 전광판 시계로 바뀌어 천박함이 묻어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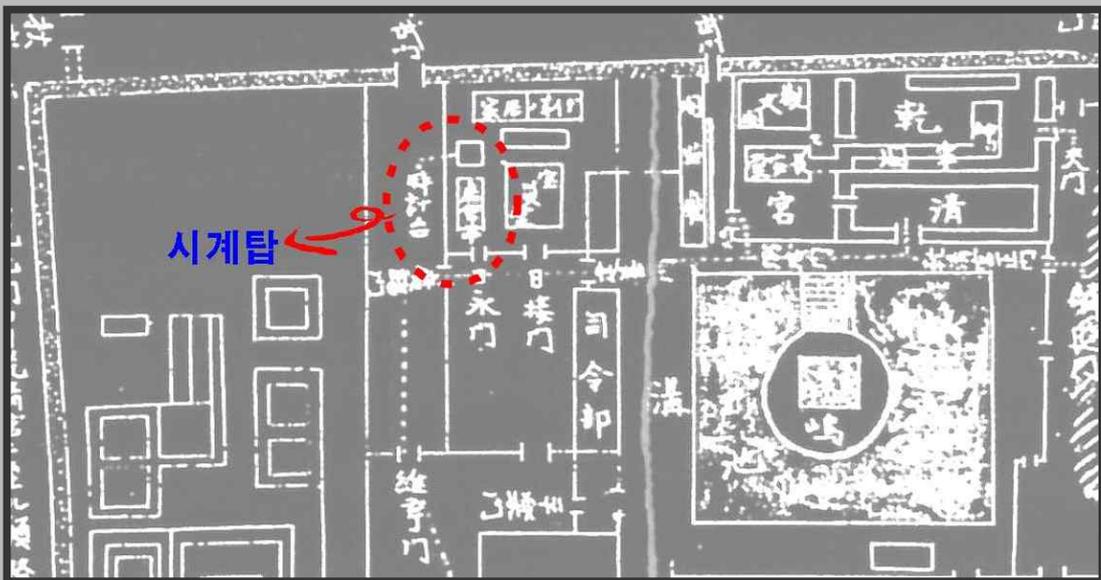
<그림 1> 대한의원(1908)의 시계탑(사진 김란기)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다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본인 기자가 그린 삽화의 시계탑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우찌다 사다즈치(内田定槌)가 작성한 당시의 배치도를 보자.

이 배치도는 시해 주범 미우라의 낭인들이 어떤 경로로 침범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도면으로, 여기에 시계탑의 위치도 표기되고 있다. 이 배치도는 1895년 12월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당시에 시계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배치도는 집옥재의 앞 쪽, 관문각의 왼쪽,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도 나무들이 여러 그루 심어져 있고 경사진 언덕이 있다. 당시 관문각 건물이 더러 가리기도 했겠으나 그 만큼 좁 높은 곳에 세웠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당시 시계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계탑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그림 8> 우찌다 사다즈치(内田定槌)가 작성한 [한국왕비 살해 일건 제2권(韓嬪王妃殺害一件第2冊)]에 수록된 건청궁 일원의 배치도 일부. ‘시계대’라고 기록하였다.(金文子,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高文研, 2009. 2. 게재사진)

앞서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 1888년에 사바쩐이 서울에 들어 왔다고 했다. 또한 집옥재는 1888년에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면서 이축하였다고도 했다. 관문각 또한 188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892년에 완성하였음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들과 함께 시계탑은 1888년에 지어진 것으로 최근 접근되어 가고 있다(전우용).<sup>1)</sup>

여기서 우리는 사바쩐의 행적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록이 뚜렷하지 않으니 주변 상황부터 점검해 들어 가보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바쩐과 얼마나 관계되고 있는가를 살펴자.

사바쩐이 인천해관을 사직한 것은 1888년 4월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집옥재의 건축 형식에서는 사바쩐 스타일의 디자인, 혹은 디테일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1) 전우용. 서울이야기 26 - 시계탑(03). 전우용은 ‘이 땅에 최초로 기계식 시계를 설치한 건조물 = 시계탑으로 추정되는 것은 1888년 경복궁 내에 신축된 관문각 옆의 시계탑이다’고 하였다(이 순우 재인용).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 두자. 곧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 상상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니다

이쯤에서 전우용의 이야기와 우찌다의 배치도, 그리고 일본기자 지즈카의 삽화를 비교하면 정밀하지는 않지만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없다. 거의 확신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을 갖다 들이대면 이야기는 완성된다. 다만 삽화의 그림과 사진에 나타난 형상은 다소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의 정밀성의 문제이므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림 3> 이 사진은 신무문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으로 오른쪽 담장 너머 건청궁 쪽에 시계탑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Villetard de Laguerie의 <la Corea>(1898)에 수록된 사진이다(이순우). 시계탑이라 지목된 우측에 솟아 있는 건물은 목조라지만 마치 벽돌조처럼 보인다.



<그림 4> 신무문 안에서 정면을 향하여 옛 사진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다. 옛 사진에는 신무문 정면을 향하여 좌우측에 담장이 있고 우측에 집옥재 쪽으로 드나드는 광림문이 있는데 지금도 제자리에 있다. 시계탑은 보이지 않고 광림문 모습도 다소 달라 보이지만 시계탑이 있는 위치를 가늠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림 5> 신무문과 집옥재의 팔우정(八隅亭)을 향하여 본 시계탑의 터. 신무문 앞쪽, 팔우정 서쪽 야트막한 경사지 언덕 위에 시계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순우는 시계탑이 집옥재 후편, 신무문 안쪽이라 하였으나 집옥재의 왼쪽 앞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시계탑이 위치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위치. 오래된 나무 밑에 기단석이나 장대석으로 보이는 유구들이 교란된 채 묻혀있다. 이것들이 과연 시계탑과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대가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 사진 김란기)

그리고 이제 이 시계탑은 사바찐에 의해서 건립되었음을 또 다른 간접적인 기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에밀 마르텔(Emil Martel)이 저술한 <외국인이 본 조선외교비사(外人の闖たる朝鮮外交秘話)>②는 확실하게 사바찐이 설계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록이 상당부분이 왜곡되고 있지만 ‘목조시계탑’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각주를 참조할 것). 이제 우리는 이 시계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궁금증이 생긴다. 상상이라도 보자. 상상하는데 돈 드는 것은 아니다!



<그림 7>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사바찐적일까? 어떤 것이 사바찐이 설계한 시계탑에 가까운 것일까? 앞서의 사진 속에 보일듯 말듯 한 모습에서는 찾아내기가 꽤 힘들다.

2) 편저자 : 일본인 고사카 사다오(小坂貞雄). 조선외교비사출판회. 1934. 이 저술은 본래 에밀 마르텔이 기술한 것으로 고사카가 편저작하여 <외국인이 본 조선외교비사(外人の闖たる朝鮮外交秘話)>란 이름으로 1934년 출판한 것이다. 여기서 마르텔은 [조선미술과 외국인]이란 표제 아래 ‘러시아건축가 초빙’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이 기술은 사바찐을 매우 왜곡하여 묘사하고 있어서 흥미를 더해 준다. 이 기술은 ‘일청전쟁 이전, 당시 조선 국왕에게는 구풍(歐風)의 궁전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러시아 건축가 세레딘 사바찐이라는 기사를 초빙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3년간 조선에 있었으나, 오직 봉급을 닷을 뿐이지 전연 훌륭한 건축도 설계하지 못하였다. 구태어 말하자면 가깝스로 경복궁 안에 세워진 목조시계탑을 했을 따름 이었다’고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 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러시아공사관(현재의 영사관)과 프랑스공사관(현재 서대문 소학교)을 그 간청에 의하여 설계건축했다. 더구나 이것은 나중에 판명되어진 것이지만, 당시 임금은 몸소 양풍(洋風)의 궁전을 건축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권해지매 일응(一應) 고려 되어진 정도로, 결국 구풍궁전(歐風宮殿)은 당시 미처 조영됨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다(이 순우, <http://cafe.daum.net/distorted> 재인용)’라고 까지 하여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서 우리의 사진에는 그 모습이 명확하지 않았고, 삽화에도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사진이나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짐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위의 박스 안은 외국의 것들이다.

안타깝지만 시계탑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기로 하자. 너무 앞서가다가는 거시기하는 수가 있다. 다만 이제부터의 집옥재의 이야기와 견주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건청궁 전등소’ 이야기는 기회가 나면 해보기로 하자.

## 집옥재에서 느끼는 사바찐의 이미지



<그림 16> 세키노 터다시에 의해 1902년 촬영된 집옥재의 모습. 세키노는 한국건축조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어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하였다. 건청궁이 폐쇄되고 경복궁이 방치되어 궁궐 전체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전각들은 노후하여 스러져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征野貞, 위 책 사진, 제 192도)

건청궁 서측의 집옥재도 흥미를 주는 건물이다. 집옥재는 본래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이였으나 1888년에 고종이 경복궁으로 옮겨 왔으니 흥미롭다는 것이다. 그 흥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건물의 디테일을 보면 느낌이 바로 오기 때문이다. 고종이 이 건물에서 외국의 사신을 맞이했고 공사들을 접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재를 옮겨 온 건물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흥미로 유도한 이유는 이 건축물의 세밀한 부분에 그 흥미의 근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도 흥미를 느낄만하기 때문이다. 우선 건물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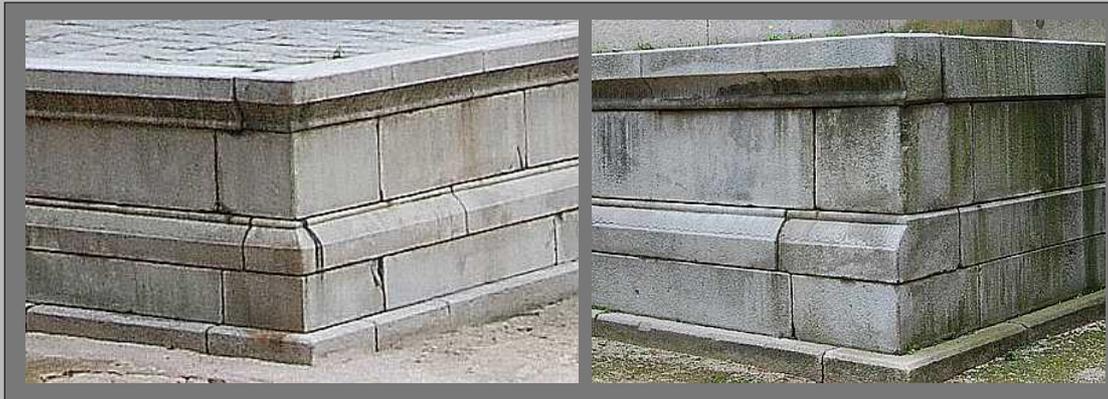


<그림 17> 집옥재의 앞 쪽 기단.



<그림 18> 집옥재의 후면 기단과 벽돌벽.

중국적인 냄새가 짙게 풍긴다. 벽돌과 석재, 그리고 목재가 혼합하여 사용된 이 건물은 그 디자인에서도 중국풍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 기단에서 다른 건물과는 차이가 나타남을 꼭 짚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매우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성이 강함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통적인 두벌대, 혹은 세벌대 등으로 설명될 수 있기보다는, 나아가 이른바 ‘가구식(家具式) 기단’이라 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마무리 처리는 근대적 건축가의 손을 거친 근대적(혹은 서구적) 디자인의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모서리의 마무리처리와 갑석의 하부와 장대석(인방석) 상부의 사면(斜面)치기는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실어 준다.



<그림 19> 좌측은 집옥재의 앞쪽 기단(월대)의 모서리이다. 우측은 후면의 기단 모서리이다. 기단이든 월대이든 이제까지 전통적인 건축에 나타난 월대 혹은 기단의 모서리부분의 처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가구식’이라고 하기에는 모서리 이른바 ‘우주석’이 기둥이라고 보기보다는 ‘귀틀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장대석은 땅에 거의 묻힌 가로재를 이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제 후면의 창호부분으로 눈을 돌려 전통적 창호인지, 중국풍 창호인지, 혹은 근대풍 창호인지 따져보기로 하자.

집옥재의 후면에 꾸며진 창들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중앙의 원형 창은 중국의 그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창들은 아치형(홍예형)으로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흔하지 않는 형태이다. 특히 문틀(창틀)을 중후한 석재를 쓰고 그 이음매에서도 기하학적인 모습을 볼 때 서구의 근대적 느낌을 크게 준다고 할 수 있다. 미려한 아치형을 이름에도 그 세부는 매우 단순하여 간결한 아름다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살은 마름모형을 디자인을 도입하여 근대적인 기하학의 개념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 집옥재 뒷면의 창호 모습. 전통적인 창호 모습이라기보다는 서구적인 느낌이 풍기는 형상이다. 석재의 가공과 조합은 권위적이지 않고 관료적이지 않다. 하이어라이키가 순진하다.

이 창살은 격식이 중시되는 궁궐 건축에, 그것도 앞면이 아닌 뒷면에 개인적인 취향이 양해될 수 있는 부분에 나타난다함은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더구나 서구 디자인에 중독된 현대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라 해도 허황은 아닐 것이다.

벽면을 붉은 벽돌조로 한 것은 후세에 바뀌지 않았다면 석조의 기본 틀 속에 매우 뛰어난 디자인 배합으로 볼 수도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 해준다.

필자가 위와 같이 집옥재에 대해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사바찐이 관문각을 짓기 직전에 집옥재가 창덕궁으로부터 이축해 왔으며, 그가 인천으로부터 입경한 후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집옥재를 이축하여 건립할 때 사바찐의 영향은 없었겠는가에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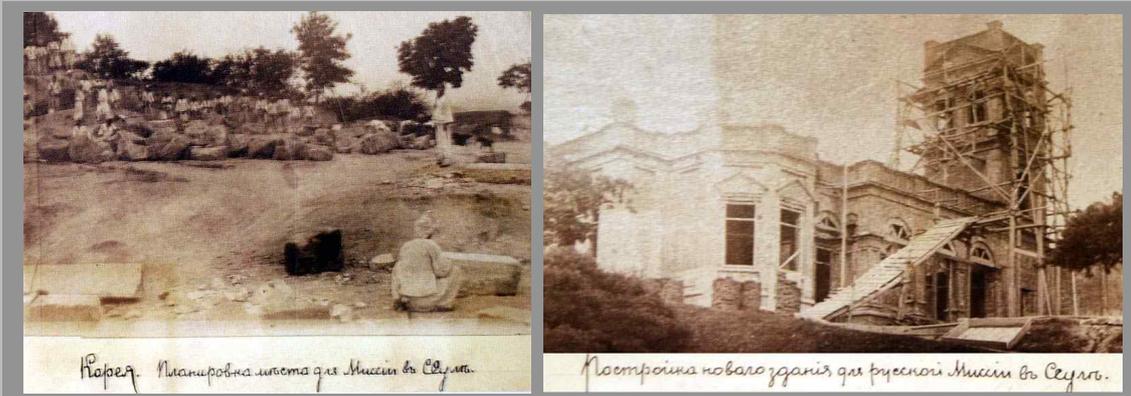
아직은 문헌이나 자료에서 사바찐이 집옥재의 이축에 관여했다는 정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적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바찐의 다른 건축에서 보여지는 ‘사바찐 디자인’의 요소라고 보기에는 이르나 시기적인 일치와 디자인은 단순히 추측일 수도 있음을 제압하고 있다. 추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사바찐이 조선으로 들어 올 때의 이야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보자. 말하자면 집옥재에 조금이라도 손대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그 연구는 김태중교수가 심도있게 해 놨다. 김교수는 뮐렌도르프가 상해에서 사바찐을 데리고 올 때 그를 추천한 보좌(관) 하스<sup>3)</sup>가 이미 ‘대조선 국왕이 올바르게 사람을 쓰고자 하는데 만일 조선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으로 옮겨 외국 조계지를 측량하고 이올러 궁궐건축을 맡는 일을 권유하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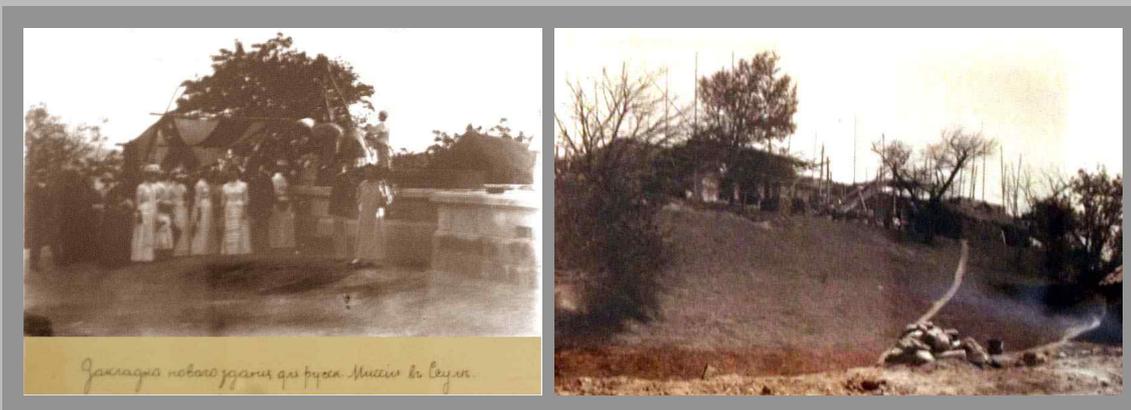
3) 하스. Hass, 哈司. <김태중. 위 논문. 109쪽.>. 오스트리아인으로 뮐렌도르프의 보좌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바찐은 조선으로 올 때 궁궐건축 일도 할 것을 조건으로 온 것이다. 여기서 궁궐건축은 서양식 건축이든 조선식 건축이든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뮐렌도르프에게는 그가 초기에 사바찐에게 시켰던 ‘築埠頭하고 建稅關하는’ 일이 우선이었지만 결국 사바찐이 한성에 입성한 후에는, 말하자면 사바찐이 인천해관을 그만두고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일의 성격이 바뀌고, 직무도 달라졌던 것이다. 그 직무는 궁궐건축의 회계담당이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궁전건축가’로 혹은 ‘영조교사(營造敎士)’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림 23> 옛 러시아공사관의 공사광경. 좌측은 뒤쪽의 많은 사람들이 축대공사를 하고 있고 앞쪽에는 장대석을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측의 사진은 건물공사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기의 모습으로 아직 비계와 오름발판이 보이고 있다.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전시회사진)

결국 사바찐이 한성에 들어온 1988년은 집옥재가 창덕궁으로부터 이축되는 시기이고 그가 궁전건축가, 혹은 영조교사로 활동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바찐이 궁정건축가로서, 영조교사로서 집옥재의 이축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디자인 취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큼을 공감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혹은 그 후 고종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도는 상당했으며 그 같은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26> 왼쪽은 착공식 사진으로 공사관 여인들도 현장에 나와 찍은 사진. 오른쪽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언덕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전시회사진)

위에서 우리는 <사바찐이 설계한 시계탑>에서 사바찐이 집옥재 앞에 설계했음을 검토했다. 그것은 사바찐이 임의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큰 목조 시계탑이었으며 그 공식기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집옥재 이측에 관여가 공식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바찐은 창작열, 혹은 일에 대한 의욕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한성 입성 직후 곧 설계에 손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인천에서 세관청사(1차 1883년, 2차 1885년)와 세창양행사택(1884)을 설계하여 ‘손맛’이 살아나고 곧바로 베베르로부터 (일본인 설계자를 물리치고) 러시아공사관 설계 위촉을 받은 시기와 맞물리기도 한 때이다.

## 고종의 개혁 드라이브에 사바찐도 무임승차...

자, 이쯤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수도 서울에 ‘설덕’이 들어와서 ‘설친’ 배경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사바찐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83년이었고 중앙에, 그것도 왕실에 진출한 것은 5년 후인 1888년이었으니 짧은 기간 동안에 ‘쾌속성장’한 케이스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엇이 그가 이처럼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

뮐렌도르프의 강력한 힘?

그것만으로?

아니다.

보다 더 구조적인 배경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 배경은 바로 ‘시대’이다. 시쳇말로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스러운 갑신정변(1884)이 지나고 일본 세력들이 잠시 주춤하던 시기로 고종이 러시아에 약간 기댄 채, 그리고 청과 일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던 시기였다(중립화론 등장). 큰 사건인 갑오개혁(1894), 을미사변(1895년)이 있기 전 10년간의 비교적 순탄한 시기(짧게는 갑오농민봉기 전까지)의 중심에서 사바찐은 중앙 데뷔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시기 고종은 갑신정변의 반동(反動) 여세를 몰아 일본세력을 누르면서 청도 적당히 견제하여 절묘한 틈새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는 적절하게 대응해 주었다(조로비밀조약 등). 그 여세로 고종은 개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으며 그 드라이브 속에는 ‘양관’도 부드럽게 궁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계속)

본고는 미완성으로 인용을 삼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 10. 03.

김란기(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